
'15년 제2회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회의
이낙연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결과

2015. 10.

'15년 제2회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회의 이낙연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결과

'15년 제2회 이낙연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에 따른 결과 정리 및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

I | 보고서 개요

- 일시/장소 : 2015. 9. 21.(월) 14:00 ~ 17:00 / 서재필실
 - 참석 : 48명(주민평가단 28, 관계 공무원 20)
 - 주요내용
 - 지난회의 시 평가단의 주요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 공약(76건) 추진상황 및 변경사항 보고*, 평가위원 의견제시 등
- * 섬·갯벌 등 관광명소 조성 : 테마섬 개발 → 가고 싶은 섬 가꾸기

II | 평가위원 주요 의견

□ 전반적인 분야

- (천대진 위원) 전남의 슬로건이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인데 이낙연 도지사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성과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주기 바람 / 정책기획관실
- ▶ 1년 만에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지표들로 보면 최근 몇 달간 전남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취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음. 짧은 기간 동안이라 지표들에 대해 이게 성공이다 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므로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농촌에서 귀농·귀어를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음. 귀농·귀촌센터는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정착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지원을 돕는 시설(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을 구축하려 하고 있음. 청년이 원하는 전남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수요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 수요도 상당히 높음. 학교를 폐교시키지 않고 유지시켜 나가는 노력도 필요함. 또한 목포, 여수, 순천, 구례를 제외하고는 시·군에 영화관이 하나도 없는데 극장 같은 아주 기본적인 문화 시설들을 시·군에 어떻게 갖추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 중에 있음. 청년이 돌아오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고 성공이라 말하기에는 앞으로도 지표를 지켜 봐야 하는 장기적 목표임

- (이중규 위원)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 문화, 안전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기 바람 / 정책기획관실

- ▶ 이미 알고 있지만 어떻게 실행하는가가 중요함. 우리 전남은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40% 이상임. 교육재정 교부금을 학교 수 기준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학생 수 기준으로 바꾼다고 함. 학생 수가 적고 학교 수는 많은 전남은 이렇게 기준이 변경된다면 상당히 피해가 우려됨. 그래서 도와 도의회, 교육청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함

- (이진우 위원)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예산의 확보여부로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프로그램 자체로 중요한 것이 많으므로 성공의 기준을 정립해 주기 바람 /공통

- ▶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음

□ 지역경제 분야

- (윤주선 위원)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사업에서 사회적 기업을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까지 합쳐서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람 / 일자리정책실

▶ 우선구매 공시 및 평가에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실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구매해 나가고 있음

- (윤주선 위원) 도내 중소기업 생산 제품을 다른 지자체에 납품하려면 그 지역에 사업장을 만들어야 납품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람 / 중소기업과

▶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음

- (김농오 위원) 풍력발전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풍력발전의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풍력발전의 사업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에너지산업과

▶ 금년 5월에 신재생에너지 분과위원회를 17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해서 풍력에 대한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또한 주민 마찰 최소화를 위해서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주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개정·완화할 사항이나 강화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농·축·어업 분야

- (이중규 위원)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친환경 수산물도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주고, 친환경 농산물의 과잉생산에 따른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람 / 수산자원과, 농식품유통과

▶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관련 부서에 알려서 검토해 보겠음

- (이중규 위원) 친환경 식자재 제공 시에 박스에 붙어있는 친환경 마크를 보관토록 하는 친환경 정책보다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자, 공급자를 감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람 / 농식품유통과

▶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음

□ 관광·문화 분야

- (장재호 위원) 「가고 싶은 섬」 홍보 시 광고 효과로 관광객들이 일시에 몰려 관광 및 섬 자원 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홍보를 해주기 바람 / 해양항만과

▶ 「가고 싶은 섬」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도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필요. 홍보가 모객 효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에 나무심기 등 주민의 협조를 통해 지역발전 및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감안해 주기 바람

- (장재호 위원) 수도권 등에서 전남 축제 방문 시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 제대로 된 관광을 할 수 없으므로 축제를 시·군별로 하나 정도로 줄이고 수도권 방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숙박, 교통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연구해 주기 바람 / 관광과

▶ 시·군 축제는 도에서 줄이라고 요구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도에서는 선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축제들에 대해서만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여 효과가 없는 축제는 자연적으로 정리되도록 방향을 잡고 유도해 나가겠음

- (임영규 위원) 「가고 싶은 섬」 사업의 24개의 섬 선정에 어떤 기준 지침이 있는지와 시·군별 섬 보유 규모에 따라 선정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 궁금함 / 해양항만과

▶ 「가고 싶은 섬」 선정기준은 주민 발표가 10%, 서류평가가 30%, 현장평가 60%로 총100점 만점으로 정하고 있음. 총24개를 선정할 계획인데 시·군별로 상한선의 제한은 없음. 우리 도에 섬을 보유한 시·군은 12개가 있는데 200개 이상의 섬을 보유한 시·군이 여수, 고흥, 완도, 진도, 신안 5개 시·군이고, 나머지는 200개 이하임. 섬이 많은 지역은 많이 선정될 수 있지만 지역적 균형도 고려하고 있음. 앞으로도 이런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좋은 안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음

- 현장평가 부분은 탐방로, 자연 풍광, 관광자원 등 섬 고유의 생태자원 보유현황은 어떤가? 섬 마을의 전통문화 등 매력적인 섬 문화가 있는가? 경쟁력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선정함
- 서류심사는 사업이 적합한가? 창의성이 있는가? 가능한 사업인가? 또는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있고 또 주민참여의 의지를 보고 있음

○ (임영규 위원)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상징성을 가진 옛 도청 건물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도청 공무원의 파견과 함께 문화전당을 활용하여 전남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주기 바람 / 문화예술과

▶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음

○ (최경필 위원) 중국 관광객을 위한 대형 숙박시설이 부족한데 도에서 대형 숙박시설들을 유치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함 / 관광과

▶ 도차원에서 호텔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이런 사업은 사례가 많지 않아 방향 정립이 필요함. 경험상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호텔을 유치해야 할지 연구해 보겠음

○ (최경필 위원) 시·군의 축제를 계절별로 3~4개씩 엄선하여 공중과 방송을 통해 광고했으면 좋겠음 / 관광과

▶ 상당히 좋은 제안인 것 같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음

○ (김농오 위원) 「숲 속의 전남」이나 「가고 싶은 섬」 등의 사업에서 대상지를 엄정히 선정하고, 사업규모나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급해서 추진해 주기 바람 / 산림산업과, 해양항만과

- 사업지 선정에서 탈락한 곳에도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인 지원 장치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음

▶ 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차등 지원이 되고 있고, 사업 내용도 다른 것이 대부분임. 섬마다 자체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각 섬의 고유한 생태와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음

○ (김농오 위원) 크루즈 관광시대를 맞아 목포항에도 크루즈가 올 수 있도록 해주고 가거도는 중국과의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기후적 여건도 좋아 중국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전략적인 섬으로 개발했으면 좋겠음 / 해양항만과

▶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음

○ (김농오 위원) 내년 장흥 통합의학박람회와 연계하여 서남권에 의료 관광의 거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고 지자체 차원에서 중국과 학술교류, 민간교류, 바둑대회 등 이벤트성 관광객 모객에 노력해주시기 바람 / 관광과

▶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내년에 대대적으로 개최됨.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 나가고 있음

- (정용태 위원) 「가고 싶은 섬」 사업과 관련하여 스킨스쿠버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기 바람 / 해양항만과
 - ▶ 공감하고 관련 부서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음

- (김병기 위원) 고려청자박물관 주변에는 180여 개의 가마터가 산재되어 있는데 고려청자박물관의 국립박물관 전환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시에 박물관과 가마터가 함께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문화예술과
 - ▶ 제안으로 알고 함께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음

- (이중규 위원) 가로수가 농어촌의 좋은 경관을 가리고 있는 곳이 많음. 주무부서에서 현장을 검증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산림산업과
 - ▶ 관광객들 입장에서 가로수가 멋있게 세워져 있으면 좋아 보이기도 함. 담양 및 화순에는 메타세쿼이아가 햇볕을 가려서 농사에 피해가 있다는 말도 있음. 이런 것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봐야하고 정말로 관리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음

- (김창훈 위원) 섬과 갯벌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 도비 등 공공부문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투자도 유도하여 추진하기 바람 / 해양항만과
 - ▶ 민간 투자가 계속되어야 그 지역이 발전하지만 민간 투자자의 방침에 따라 일반인의 섬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음. 우리 도의 섬을 가고 싶은 섬으로, 갈 수 있는 섬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지역개발 분야

- (장재호 위원) 「공영버스제」 및 「100원 택시」 사업과 관련하여 버스노선에 관광객들도 활용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해 주고, 가족 단위의 관광객에 맞춰 투어택시, 승합택시 등을 만들어 KTX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 바람 / 도로교통과
 - ▶ 현재 일부 시·군에서 대형 택시를 이동 및 관광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음. 완도 같은 섬 지역에서 주민들을 운송하기 위해 대형택시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음. 버스공영제와 관련해서 4개 시·군에서 공영제 관련 용역을 했는데 곡성 같은 일부 시·군에서는 1,000원 버스라고 해서 버스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방문객도 활용할 수 있음. 지난번에 KTX역에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버스를 도입해 달라는 의견과 같은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음

- (최경필 위원) 국도 27호선 벌교-주암간 4차선 확장 공사에서 벌교에서 송광면까지가 올 연말에 완공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조속히 투입되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 도로교통과
 - ▶ 도 차원에서 국비확보를 위해 수차례 요청했었던 사업임. 정책당국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도로를 보면 통행량은 많지 않고 도로는 잘 갖추어 졌다고 생각할 수 있음. 그렇지만 그 곳이 2차선 도로가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송광사라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관광지를 가야되는 도로임. 예산이 조속히 반영되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하겠음

- (이진우 위원) 「100원 택시」 사업이나 「버스공영제」 사업은 연차적으로 예산 소요액이 늘어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기간 동안 매년 예산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음. 발전적으로 예산을 재조정해 주기 바람 / 도로교통과

▶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음

□ 환경의 보전 · 관리 분야

○ (홍나라 위원)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이 건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해양항만과

▶ 선박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법인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승객 관리를 해왔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에서 해양 교통 안전공단 설립을 건의했음. 이익단체가 아닌 선박 안전 기술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승객 안전에 도움이 될 것임

□ 도민복지 분야

○ (천대진 위원) 해남의 요양원에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공점업 할머니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평화의 비 건립을 추진하는데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여성가족정책관실

▶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음

□ 열린도정 분야

○ (김농오 위원) 「숲 속의 전남」이나 「가고 싶은 섬」 등 장기적인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핵심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 총무과

▶ 담당자가 한 자리에서 2년 이상 일해야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는 것이 지사님 방침임. 2년을 이하 이동 자제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으나 건강, 승진 등으로 다른 자리로 가는 사례가 예외적으로 발생함. 사업의 핵심 공무원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Ⅲ

행정사항

-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실천계획에 따라 이낙연 도지사 공약 추진 상황 보고서 도 홈페이지에 탑재(정책기획관실) : 10. 16.까지
- 보고회 시 평가 위원들이 제시한 주요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계획 제출(해당 실·과) : 10. 20.까지

분야별	주요의견(평가위원)	후속 조치상황(계획)

※ 후속 조치상황(계획)은 내년 상반기 공약이행주민평가단 정기회의 시 보고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성실하게 작성